수도권 뉴스

인천시

'공기업설명회' 개최

인천시는 오는 8월 30일 인천시청 중앙홀과 대회의실에서 '2018 인천지역 공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취업을 준비하는 인천청년을 위해 인천시와 중부고용노동청,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KT&G 인천본부가 공동개최하는 행사로 11개 공기업이 참가한다.

현장에는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해 기업설명회와 기업별 그룹상담 등의 방법으로 인천청년들에게 기업 홍보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도 해소해 줄 계획이다.

또한 블라인드 취업특강에서는 공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하는 방법과 이번 행사 참가기업의 최근 채용트렌드를 분석해 줄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인천시-인천관광공사

K-POP 한류콘서트 열린다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는 국내 최정상급 K-POP한류콘서트인 INK2018(Incheon K-POP Concert) 콘서트를 오는 9월 1일 문학경기장 주경기장(미추홀구 매소홀로)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INK콘서트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인천시민들에게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해온 K-POP 축제이다. 국내 최정상급 K-POP스타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매년 1만 여명 이상의 해외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한류 콘서트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호남 소식

광주 숭덕고

정읍시 일대 국토순례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사제동행 국토순례를 실시하고 있는 숭덕고등학교가 올해는 전라북도 정읍시 일대에서 '의(義)와 선비의 고향을 찾아서'를 주제로 국토순례를 진행했다.

숭덕고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전라북도 일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주제로 제7회 사제동행국토순례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서 학생들은 전라북도 정읍시 일대에서 '의(義)와 선비의 고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동학농민 혁명 유적지인 만석보터, 전봉준 생가, 무명 농민군 위령탑 등과 김명관 고택, 무성서원(최치원 배향), 내장산 용굴암(조선왕조실록 보관 터)을 답사하고 선비 문화 체험(선비놀이, 탁본을 통한 대나무 족자 만들기)을 진행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율' 전년 比 5.6%

호남통계청 6月 산업활동 동향

건축수주·운송장비·화학제품 ↓

비금속광물·섬유·소매판매액 ↑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율이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율은 전년 동월대비 5.6%, 전월대비 4.2% 각각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분야 중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금속가송, 음료 등이 증가했으나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장비, 자동차 등이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4.0%, 전월대비 0.2% 각각 줄었다. 기계장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음료 등이 증가했으나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1차금속 등이 감소했다.

광공업 재고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 감소했고 자동차,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은 증가했다. 전년 동월대비 11.2% 증가했으나 전월대비 3.0% 감소했다.

불빛 영롱한 여수국가산단 야경 /뉴시스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1.1로 전년 동월대비 0.7% 증가했다. 백화점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1.2%, 대형마트는 0.1% 각각 증가했다.

6월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192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96.9% 감소했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은 74.0% 감소했고, 민간부문도 99.6% 줄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96.7%, 토목부문은 98.7% 각각 감소했다.

6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비금속광물, 고무 및 플라스틱, 석유정제 등이 증가했으나 기타 운송장비, 기계장비, 금속가공 등의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5.3% 감소했고, 전월대비 0.8% 줄었다.

광공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비금속광물, 섬유제품은 증가했으나 기타 운송장비, 1차금속, 화학제품 등은 감소했다. 전년 동월대비 7.4%, 전월대비 4.3% 각각 감소했다.

광공업 재고는 비금속광물, 나무제품, 금속가공 등이 감소한 반면 1차금속, 식료품, 화학제품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9.3% 늘었다. 전월대비는 5.1% 증가했다.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8.4로 전년 동월대비 1.1% 증가했다.

6월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2349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3.0% 감소했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은 44.5%, 민간부문은 10.1% 감소했다. 공종별로 건축부문은 56.1% 감소했으나, 토목부문은 18.2% 증가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경기도 도시가스 2.8% 인하… 가구당 1275원 '뚝'

〈연간〉

이달부터 소매공급비용 인하

생활 안정·생활비 절감 기대

경기도가 8월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2.8% 인하한다. 이에 따라 도내 가구 당 연간 1275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8월 1일부터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2.8% 내린다고 3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원료비 상승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요금이 약 4% 인상되면서 도민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번 경기도의 소매공급비용 인하 결정으로 도민의 생활 안정과 생활비 부담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현행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90.2%)과 시·도시자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9.8%)을 합해 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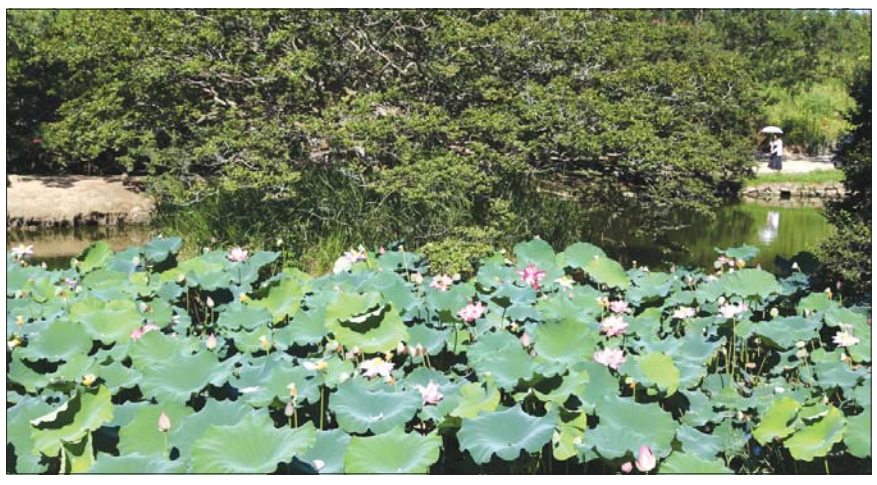
이번 인하는 도내 6개 도시가스회사의 적정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겨울 이상한파 영향으로 급증했던 도시가스 판매량을 정산, 소매 공급비용을 기존 1.4337원/MJ에서 0.0402원(2.8% ↓) 내린 1.3935원/MJ로 결정했다.

이번 소매공급비용 인하에 따라 추산된 주택용 난방요금은 1.4797원/MJ으로, 작년 세대별 연평균 사용량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연간 약 1275원의 생활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열 기자 kimsy@

도시가스 공동주택의 배관라인. /유토이미지



연꽃 핀 담양 명옥헌 31일 오전 전남 담양군 고서면 명옥헌 원림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공동주택 1만곳 특수형광물질 도포

성남시는 침입 범죄 사전 예방 조치의 하나로 최근 두 달 간 사업비 8000여 만원을 들여 단독·공동주택 1만210곳에 특수형광물질을 추가 도포했다.

이로써 2014년 5월부터 이번까지 특수형광물질이 칠해진 곳은 모두 4만9880곳으로 늘었다.

들어간 사업비는 모두 6억3000만원이다. 성남시 관내 경찰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형광물질 도포 전인 2013년 1312건이던 절도 침입 범죄 건수는 지난해 51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침입범죄 발생률이 60.7% 줄어든 셈이다.

성남지역에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곳은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다. 성남시는 내년도에는 도비를 받아 지역 내 3500여 곳에 특수형광물질을 추가 도포할 계획이다.

/성남=김승열 기자

"워라밸로 근무혁신… 휴가 떠나라"

이성호 경기도 양주시장

이성호 경기도 양주시장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직원들에게 '워라밸' 근무혁신을 주문했다.

'워라밸'은 1970년대 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Work and Life Balance(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워라밸 지수는 10점 만점에 4.7점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2위를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이 시장은 전직원에게 메시지를 통해 여름 휴가철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인 일과 삶의 균형에 맞춘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워라밸 근무혁신'을 강조했다.

이 시장이 강조한 워라밸 근무혁신 10대과제는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업무집중도 향상으로 장시간 근무관행 바꾸기, 똑똑한 회의 등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워라밸 근무혁신 10대 과제의 이행을 관리자인 부서장부터 적극 실천해 달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의 실천이 직원 개인과 직장, 모두에게 행복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 /양주시

한편, 양주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정시퇴근을 하는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근무혁신 10대 과제가 포함된 삶의 쉼표, 누리고 그리고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경기 양주=고성철 기자 ksc@